



# 거룩한 읽기,

## 기독교세계관과 묵상 2

◎ 이춘성 (한국라브리공동체 간사)

### [지난 호에 이어서]

####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 세계관을 바꾼다.

“인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경험들을 해석하는 로드맵이거나 줄거리이다. 또한 이것은 실재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릴 것인가를 결정한다.”<sup>(1)</sup>

이것은 오스 기니스의 세계관에 대한 정의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관은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결정해 주며,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인식론, 존재론, 도덕론(윤리)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대를 지배했던 세계관을 소개하고,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제시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17-19에서 이방인(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마음의 허망함”(The futility of their minds)이라 표현하면서 그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무지(인식론), 둘째는 영적 사망(존재론), 셋째는 도덕적 무감각(도덕론)입니다. 바울이 비록 세계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세계관의 틀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세계관)을 통해 문제의 발단이 무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2)</sup> 달리 표현하면 참된 지식이 도덕적 삶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모든 지혜가 헛됨을 알았던, 그만큼”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선을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우둔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sup>(3)</sup>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성도 안에 지혜가 가득하다고 당부합니다(골 3:16).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변화무쌍한 인간들의 지혜가 아닌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는 처세술이 아니라 “도덕적 선의 실제적 측면”이며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 요소”입니다.<sup>(4)</sup>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른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세계관의 확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을 통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이에 근거하여, 과연 성경읽기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실증적 자료 둘을 소개합니다.

#### 사례 하나.

영국 웨일즈대학의 레슬리 프란시스(Leslie J. Francis)가 2002년 겨울 <Religious Education>에 발표한 “만 13~15세의 청소년들의 약물과 담배에 대한 태도와 성경읽기와의 관계”라는 논문에 의하면, 25,888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중 41%가 스스로를 유신론자로 밝혔으며, 19%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에 나간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읽는 청소년은 3%, 매일 읽는 청소년은 2%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취하는 마약류, 약물들과 담배에 대한 입장입니다. 프란시스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청소년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은 약물 사용에 비슷한 입장을 취한 반면, 성경을 읽는 청소년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약물 사용에 관용적이지 않은 자세를 취합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은 약물 사용에 반대하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읽기가 청소년들의 영혼은 물론 그들의 육체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56)

#### 사례 둘.

2007년 미국 베일러대학(Baylor University)의 아론 프란츠(Aaron Franzen)가 연구 조사한 “성경읽기의 사회적 영향”에 따르면, 성경읽기를 통해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보수적 진보 성향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변한 대상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으며, 스스로 복음주의자라 칭하고, 매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보수적인 기독교인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 사회·경제 정의에 더욱 민감하며 활동적이고, 소비적인 삶보다 절약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학에 대해 더욱 열린 자세를 갖고, 동성애나 동성 결혼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성 결혼이 성경적이라고 찬성하는 기독교인들 (6%를 제외한) 대다수는 성경을 일 년에 단 한 번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 사례들은 성경읽기가 우리의 영적인 삶뿐 아니라 삶 전반에 변화를 가져옴을, 특히 신자들의 세계관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으면 우리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뒤바뀌는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지금도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으며, 만약 이런 일이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성령을 근심”(엡 4:30)하게 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 어떻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것인가?

한국교회 신자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성도들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마다 성경필사니, 통독수련회니, 연말에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하고 시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과연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학자인 강영안 서강대 교수는 레슬리 뉴비긴 목사와의 대화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 Os Guinness, Long Journey Home(New York, WaterBrook Press, 2003), Chapter 1.  
 (2) Peter T. O'Brien, PNIC: The Letter to The Ephesians(Grand Rapid, Eerdmans, 2009), pp.317-323.  
 (3) 자크 엘룰, 양명수 번역, 원함과 행함(서울, 솔로몬, 2008), p.32.  
 (4) J. I. Packer, Knowing God(Downer Grove, IVP, 1993), p.90.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이신가요?” 그랬는데, ‘아닙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은 복음주의자처럼 보이는데요.’라고 되물었죠. 그의 책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태도나 전도에 관한 이해나 사회변혁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 조잔언약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 번 쳐다보니 ‘그들은 인용하고 암송은 하지만,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라고 해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복음주의자들이 청의는 이야기하는데, 사회정의에는 무관심하고, 성경이 ‘총체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주의자들은 ‘영혼구원’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원하는 내용만 읽는다는 말이었어요.”<sup>5)</sup>

강영안 교수의 회고는 바른 성경읽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읽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런 식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도식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와 존재를, 새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었지만 아직도 옛 옷에 길들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지적함으로 죄책감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새 옷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고백했던 신앙고백이나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함으로써, 즉 새롭게 변화된 해석의 틀을 배움으로써 가능해집니다.<sup>6)</sup>

두 번째, 기도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최근 한 청년과 산상설교(마 5~7장)를 공부하던 중 5장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예수님이 도덕적 원리를 제시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셨을

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일까요? 기도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합법적이며,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려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어 자신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입니다. 이때 내가 알고 있던 정보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열어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깊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sup>7)</sup> 이때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은 인격적인 지식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 불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이자,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확신하며 읽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세 번째 부분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외식과는 구별됩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말씀하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대로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재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건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숨어서 보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마 6:4,6). 하나님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참된 제자가 되려면 겉으로만 떠들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갈 5:18).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숨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공동체)와 함께 읽는 것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바울 서신이 혼자 조용히 읽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큰 소리로 단번에 읽도록 쓰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sup>8)</sup> 바울 서신뿐 아니라 성경 대부분이 공동체에서 함께 읽혀졌는데, 그것은 개인의 확신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확신과 의지가 약해질 때, 우리가 강해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자신이 거할 집으로 건축하셨으며(엡 2장), 이 집은 온 우주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 운명체이며,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교회와 함께 읽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바른 성경읽기란 새 사람(기독교세계관)의 프레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속으로부터 이루어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삶이 변하며,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 기독교세계관 교육과 성경읽기

마지막으로 기독교세계관 교육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쳐 왔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은 화란의 카이퍼와 도어베르트 신칼빈주의 전통 위에 세운 개혁주의 세계관을 가르쳐 왔습니다.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는 주요 프레임인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도식이 바로 이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도식은 성경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며, 성경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카이퍼와 도어베르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같은 성경적 신앙고백을 기초로 이런 도식을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이들이 철저히 성경을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통 가운데 있는 바빙크나 벨코프는 조직신학자였지만 성경 주해가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성경 연구를 기초로 교리를 개념화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바른 성경읽기와 성경 공부의 전통이 약화되고, 철학적인 접근이 더욱 강화된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자 적극적 변증학을 발달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플라탕가나 월터스트로프 등 철학계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학자들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학계에 적극 진출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 변증학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가 교회 안에는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세계관이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기독교세계관의 참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세계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소수 엘리트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울은 시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

(5) 강영안, 물고 답하다(서울, 흥성사, 2013), p.247.

(6)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의 전체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르쳐야 하는 책이며, 동시에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복음)을 전하고 밝히 드러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비밀이란 수수께끼 같아서 이미 답이 드러나 있지만 누군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성령님의 조명과 교회의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기에 비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잘못된 관점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바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것에 가장 좋은 도구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며 교리 공부입니다.

(7) J. I. Packer, Knowing God(Downer Grove, IVP, 1993), pp.33-42

(8) Justin K. Hardin, Janson Maston, 'Preaching Paul's Letters', in David Wenham, Ian Paul(eds.), Preaching The New Testament(Downer Grove, IVP, 2013), pp.102-103.



The all-new OHAUS  
**EXPLORER**



Introducing the most intelligent  
and intuitive balance ever to  
come from the  
mind of OHAUS

«Pipette

«pH Meter

**새로워진 오하우스**

- ✔ 정전기 방지 코팅유리
- ✔ 풀터치 패드 방식
- ✔ 적외선 감지센서 기능
- ✔ 자동 도어 방식

**Specifications**

Model	EX124	EX224	EX324	EX223	EX423	EX623	EX1103	EX2202	EX4202	EX6202	EX10202	EX6201	EX10201
Capacity (g)	120	220	320	220	420	620	1100	2200	4200	6200	10200	6200	10200
Readability (g)	0.0001			0.001			0.01			0.1			
Repeatability std (g)	±0.0001			±0.001			±0.01			±0.1			
Linearity (g)	±0.0002			±0.002			±0.02			±0.1			
Stabilization Time (sec)	≤2		≤3	≤1.5			≤1						
Weighing Applications	Weighing, Percent Weighing, Parts Counting, Check Weighing, Dynamic/Animal Weighing, Filling, Totalization, Formulation, Differential Weighing, Density Determination, Peak Hold, Ingredient Costing, Pipette Adjustment, SOC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 (02)2040-6392  
http://www.ohaus.co.kr

YouTube [www.youtube.com/ohauschannel](http://www.youtube.com/ohauschannel)

Facebook [www.facebook.com/ohauscorp](http://www.facebook.com/ohauscorp)



어를 사용하여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생활 속의 단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여자나 배우지 못한 극빈층, 중들이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합니다.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이 복음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문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드니 스타크 (Rodney Stark)의 초기 기독교 성장에 대한 연구는 정확한 용어만큼이나 중요한 다른 요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역병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도자들과 자유인들은 모두 떠나고 병자들은 버려졌습니다. 이때 어디선가 노예들과 극빈자들이 나타나 이들을 치료하고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학식이 적고 가난하여 천대 받는 소외계층이었지만, 이들이 이해한 복음은 죽음을 극복할 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용어 사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확하고 개념화된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배들과 우리가 세운 개념과 용어는 계속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와 설명 방법은 현대적으로 다시 쓰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과거의 자료를 읽고 정경(Canon)인 성경을 선배들처럼 읽고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꾀와 꾀를 찌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라는 말씀처럼 세상과 더 역동적으로 대화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참된 의미의 영적 체험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바른 영적 체험이란 참 인간이 됨을 경험하는 것이며, 바른 인간의 표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 여러 책을 읽고 멘토를 찾으나, 이것들은 결국 ‘나’라는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 함정에서 우리를 구출해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세계관 공부의 시작이자 완결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요일 1:1-2)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뿌리를 세우지 않으면 열매는 언젠가 부실하기 마련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저는 기독교의 목상은 성경읽기이며, 바른 성경읽기는 기독교세계관을 형성하는 출발점이자 목적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몇몇 분들이 성경읽기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읽기와 기독교세계관 형성의 관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지 실제적인 측면은 추후로 미루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많은 분들의 삶에 성경읽기와 목상, 기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모든 삶의 중심으로 회복시켰던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이라는 부르짖음이 단지 구호나 운동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이춘성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하고 한국 및 영국의 라브리공통체에서 수학하였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분당소망교회, 대예교회 청년부 전담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라브리 간사로 섬기고 있다.